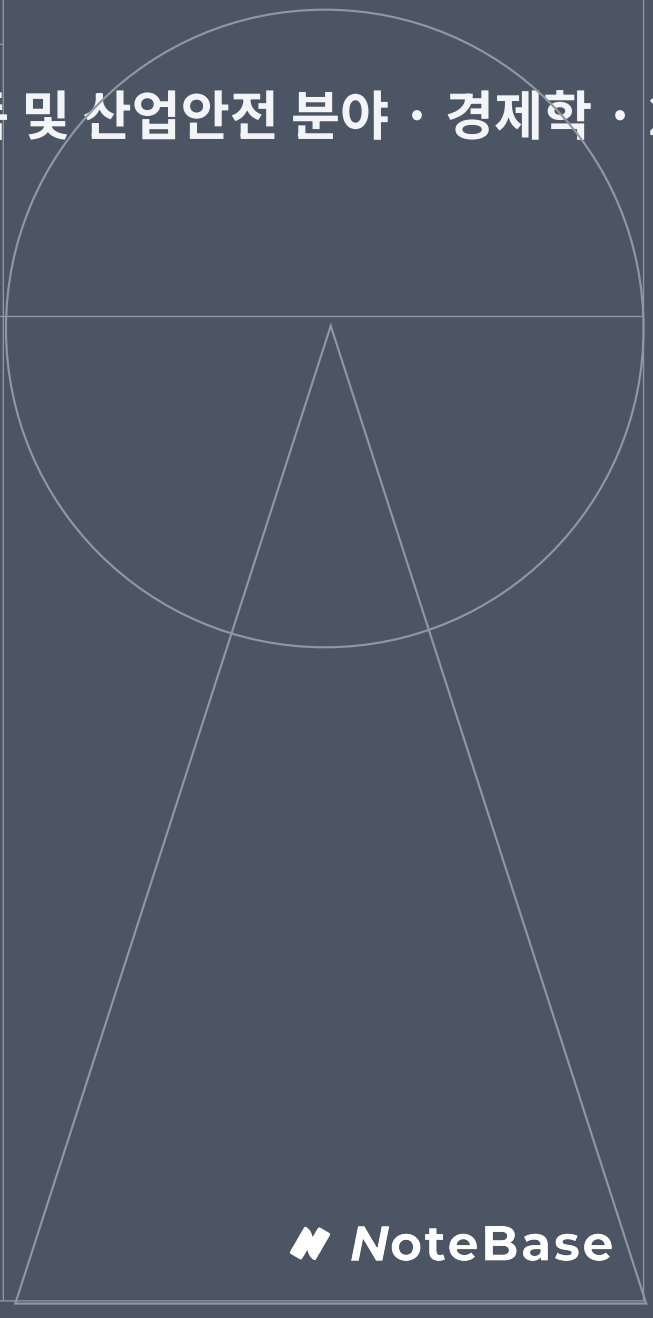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 경제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 경제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 경제학 · 2025 · 2차

문 1.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신규로 건설된 아파트의 가치

②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

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가치

④ 정부가 건설한 초등학교의 가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가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내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국내 생산은 생산 주체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포함된다.
해외 생산은 생산 주체가 국내 기업이더라도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신규로 건설된 아파트의 가치는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의 가치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틀린 부분은 이 항목을 GDP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신규로 건설된 아파트의 가치는 GDP에 포함된다.

② X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는 생산 주체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생산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틀린 부분은 외국 기업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GDP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는 GDP에 포함된다.

③ O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가치는 생산 장소가 해외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목은 국내 기업이라는 주체 기준이 아니라 해외 생산이라는 장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X
정부가 건설한 초등학교의 가치는 정부부문이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으로 보므로 GDP에 포함된다.
틀린 부분은 정부가 생산 주체라는 이유로 GDP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정부가 건설한 초등학교의 가치는 GDP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국내 기업이 만들었는지 외국 기업이 만들었는지에 시선을 빼앗기면 틀리기 쉽다. GDP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②와 ③을 서로 바꿔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문제는 먼저 생산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부터 본다. 국내 생산이면 생산 주체가 누구든 포함되고, 해외 생산이면 국내 기업의 생산이라도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GDP는 국내 기준, GNP 계열 개념은 국민 기준이다.

NoteBase

문 2. 실질이자율이 4 %, 실질GDP 증가율이 2 %,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2.5 %이다.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가 성립할 때, 명목이자율(%)은? (단,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① 2.0 %

② 3.5 %

③ 4.5 %

④ 5.5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폐수량설로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피셔효과로 명목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질이자율 4%, 실질GDP 증가율 2%, 통화공급량 증가율 2.5%이다.
구해야 할 값: 명목이자율이다.
주의할 조건: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므로 화폐수량설에서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실질산출 증가율의 합으로 본다.

사용할 공식

화폐수량설에서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면 $\Delta M = \pi + \Delta Y$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pi = 2.5\% - 2.0\% = 0.5\%$이다.
피셔효과는 $i = r + \pi$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가 성립한다고 직접 주어졌으므로 먼저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그 값을 실질이자율에 더하면 명목이자율이 된다.

계산 과정

1. 화폐수량설로 물가상승률을 구하면 $\pi = 2.5\% - 2.0\% = 0.5\%$이다.
2. 피셔효과에 대입하면 $i = r + \pi = 4.0\% + 0.5\% = 4.5\%$이다.
3. 따라서 명목이자율은 4.5%이므로 ③이 맞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2.0%는 명목이자율이 아니다. 이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실질GDP 증가율일 뿐이며, 올바르게는 명목이자율이 4.5%이다.
② X: 3.5%는 틀리다. 피셔효과에서는 기대물가상승률을 실질이자율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므로, 올바르게는 $4.0\% + 0.5\% = 4.5\%$이다.
③ O: 화폐수량설로 물가상승률 0.5%를 구하고, 피셔효과 $i = r + \pi$를 적용하면 명목이자율은 4.5%가 된다.
④ X: 5.5%는 틀리다. 물가상승률을 잘못 계산하거나 실질GDP 증가율과 통화증가율의 관계를 잘못 적용한 값이며, 올바르게는 물가상승률이 0.5%이므로 명목이자율은 4.5%이다.

오답 포인트

통화공급량 증가율 2.5%를 곧바로 물가상승률로 보거나, 피셔효과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하는데 빼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물가상승률을 먼저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가 함께 나오면 먼저 $\pi = \Delta M - \Delta Y$로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그다음 $i = r + \pi$ 순서로 명목이자율을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통속도 일정이면 물가상승률은 통화증가율에서 실질성장률을 뺀 값이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NoteBase

문 3.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이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 수요곡선: $P = -\frac{3}{2}Q_d + 35$
◯ 공급곡선: $P = \frac{5}{2}Q_s - 5$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2}{3}$,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2}{5}$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2}{3}$,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4}{5}$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4}{3}$,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2}{5}$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4}{3}$,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4}{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을 먼저 구한 뒤, 그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P = -\frac{3}{2}Q_d + 35$이다.
공급곡선은 $P = \frac{5}{2}Q_s - 5$이다.
구해야 할 값: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주의할 조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시하고, 탄력성은 기울기만이 아니라 $\frac{P}{Q}$까지 반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직접수요함수와 직접공급함수로 바꾼 뒤 가격탄력성 공식을 사용한다.
$E_d = \left|\frac{dQ_d}{dP} \cdot \frac{P}{Q}\right|, \quad E_s = \frac{dQ_s}{dP} \cdot \frac{P}{Q}$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가 균형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을 묻고 있으므로, 각 곡선의 $\frac{dQ}{dP}$와 균형점의 P, Q를 함께 써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형에서 $Q_d = Q_s = Q$이므로 $-\frac{3}{2}Q + 35 = \frac{5}{2}Q - 5$이다.
2. 정리하면 $40 = 4Q$이므로 균형수량은 $Q = 10$이다. 이를 대입하면 균형가격은 $P = 20$이다.
3. 수요곡선을 직접수요함수로 바꾸면 $Q_d = \frac{70}{3} - \frac{2}{3}P$이므로 $\frac{dQ_d}{dP} = -\frac{2}{3}$이다. 따라서 $E_d = \left| -\frac{2}{3} \cdot \frac{20}{10} \right| = \frac{4}{3}$이다.
4. 공급곡선을 직접공급함수로 바꾸면 $Q_s = 2 + \frac{2}{5}P$이므로 $\frac{dQ_s}{dP} = \frac{2}{5}$이다. 따라서 $E_s = \frac{2}{5} \cdot \frac{20}{10} = \frac{4}{5}$이다.

선지 판단

① X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2}{3}$'가 틀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2}{5}$'도 틀리다. $\frac{2}{3}$과 $\frac{2}{5}$는 각각 기울기 절댓값 또는 기울기만 본 값이고, 올바르게는 수요가 $\frac{4}{3}$, 공급이 $\frac{4}{5}$이다.

② X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2}{3}$'가 틀리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4}{5}$는 맞지만, 올바르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frac{4}{3}$이어야 한다.

③ X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4}{3}$은 맞지만,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2}{5}$'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frac{4}{5}$이다.

④ O
수요의 가격탄력성 $\frac{4}{3}$,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4}{5}$로 둘 다 맞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탄력성을 곡선의 기울기와 같은 값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frac{dQ}{dP}$만 보고 수요를 $\frac{2}{3}$, 공급을 $\frac{2}{5}$로 고르는 데 있다. 탄력성은 반드시 균형점의 $\frac{P}{Q}$를 곱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두 값이 각각 2배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형 탄력성 문제는 먼저 균형점의 P, Q를 구하고, 다음에 식을 $Q = \cdots + bP$ 꼴로 바꿔 $\frac{dQ}{dP}$를 확인한 뒤 마지막에 $\frac{P}{Q}$를 곱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점탄력성은 기울기 자체가 아니라 $\frac{dQ}{dP} \times \frac{P}{Q}$이며, 수요는 절댓값으로 본다.

NoteBase

문 4. 생산함수 $Q = \min(2L, 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량, 자본량이다)

① 노동과 자본은 완전대체재이다.

② 직선 모양의 등량곡선을 갖는다.

③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비율은 1 : 2이다.

④ 한계기술대체율의 변화율 대비 자본-노동 투입비율의 변화율은 1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레온티에프형 고정비율 생산함수에서 완전보완재 여부, 등량곡선의 형태, 효율적 투입비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Q = \min(2L, K)$는 노동과 자본이 고정비율로 결합되는 완전보완적 생산함수이다.
생산량은 $2L$과 K 중 더 작은 값으로 결정되므로 한 요소만 늘려서는 생산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효율적 투입점은 꺾인점인 $2L = K$에서 정해지며, 이때 노동-자본 비율은 $L : K = 1 : 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min 형태의 생산함수는 완전대체재가 아니라 완전보완재를 뜻한다.
한 요소가 부족하면 다른 요소를 추가해도 생산이 늘지 않으므로 상호대체가 불가능하다.
틀린 표현은 "완전대체재"이다. 올바르게는 "노동과 자본은 고정비율의 완전보완재이다."이다.

② X
직선형 등량곡선은 완전대체재의 특징이다.
$Q = \min(2L, K)$의 등량곡선은 직각으로 꺾인 ㄱ자형이며, 꺾인점은 $2L = K$에서 형성된다.
틀린 표현은 "직선 모양"이다. 올바르게는 "ㄱ자형 등량곡선을 갖는다."이다.

③ O
생산량을 q만큼 만들려면 $2L = q$와 $K = q$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L = q/2$, $K = q$이므로 효율적 투입비율은 $L : K = 1 : 2$이다.

④ X
자본-노동 투입비율 변화율을 한계기술대체율 변화율과 연결한 개념은 대체탄력성인데, 완전보완재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
이 생산함수는 꺾인점 밖에서 요소 간 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값이 1이 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1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완전보완재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식에 붙은 계수 2를 보고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2 : 1로 뒤집거나, min 형태를 완전대체재로 착각하면 ①, ②, ④를 잘못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계수의 위치"와 "min의 의미"를 동시에 흔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가 $\min(aL, bK)$ 꼴이면 먼저 완전보완재와 ㄱ자형 등량곡선을 떠올린다. 그다음 효율적 투입비율은 꺾인점 조건인 $aL = bK$를 세워 바로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min이면 완전보완재, 꺾인점은 안쪽 항을 같게 놓고 찾는다. 이 문항은 $2L = K \Rightarrow L : K = 1 : 2$이다.

NoteBase

문 5.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 것은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의미이다.

② 두 재화가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다면 기울기는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③ Y축이 음의 효용을 주는 비재화이고 X축이 양의 효용을 주는 재화라면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④ 완전한 보완관계에 있는 두 재화의 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을 갖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한계대체율, 완전대체재, 완전보완재, 비재화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은 같은 효용을 주는 재화조합의 집합이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 재화를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재화로 대체하려는 정도가 줄어드는 한계대체율 체감을 뜻한다.
완전대체재는 두 재화를 일정한 비율로 언제나 바꿀 수 있어 무차별곡선이 직선이고, 완전보완재는 두 재화를 정해진 묶음으로 함께 써야 해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다.
비재화는 많이 가질수록 효용을 떨어뜨리는 대상이므로 재화와 함께 놓이면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뜻이다. 한 재화를 이미 많이 가진 상태에서는 그 재화를 추가로 얻기 위해 다른 재화를 예전만큼 많이 포기하지 않으려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기울기는 항상 -1의 값을 갖는다"이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어서 기울기가 일정한 것은 맞지만, 그 값은 두 재화의 교환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는 효용함수가 $U = ax + by$이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a/b$이므로 반드시 -1일 필요는 없다.
③ O: Y축 재화가 비재화라면 Y가 늘수록 효용이 떨어지고, X축 재화가 일반재라면 X가 늘수록 효용이 오른다.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비재화 Y가 늘어날 때 재화 X도 함께 늘어나야 하므로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④ O: 완전한 보완관계의 두 재화는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될 때 효용이 증가하므로 한 재화만 늘려도 효용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은 직각의 L자 모양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완전대체재의 "직선"이라는 성질과 "기울기 값"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직선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울기가 항상 -1이라고 연결하면 틀리고, 대체비율이 1대1인 특수한 경우에만 -1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차별곡선 문제는 먼저 모양을 떠올린 뒤 그 모양이 의미하는 경제학적 성질을 연결하면 된다. 볼록하면 한계대체율 체감, 직선이면 완전대체, L자면 완전보완, 우상향이면 한 축에 비재화가 섞였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볼록은 한계대체율 체감, 직선은 완전대체, L자는 완전보완, 우상향은 비재화 포함이다.

NoteBase

문 6.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 기초할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총생산량 감소

②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물가하락, 총생산량 증가

③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총생산량 증가

④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총생산량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D-AS 모형에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각각 물가와 총생산량에 어떤 방향의 변화를 만드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AD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물가와 총생산량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 상승으로 AS곡선이 좌측 이동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총생산량은 감소하는 현상이다.
판단의 핵심은 AD가 움직이면 물가와 생산이 같은 방향으로, AS가 좌측 이동하면 물가와 생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서 물가상승은 맞지만 총생산량 감소는 틀리다. 총수요 증가로 AD가 우측 이동하면 단기균형에서 물가와 총생산량이 함께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총생산량 감소"이며, 올바르게는 "총생산량 증가"이다.

② X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물가하락과 연결되지 않는다. AD 우측 이동의 결과는 물가상승과 총생산량 증가이다. 틀린 표현은 "물가하락"이며, 올바르게는 "물가상승"이다.

③ X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서 물가상승은 맞지만 총생산량 증가는 틀리다. 생산비 상승은 AS를 좌측 이동시켜 물가는 올리고 생산은 줄인다. 틀린 표현은 "총생산량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총생산량 감소"이다.

④ O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 상승으로 AS가 좌측 이동하는 경우이므로 물가는 상승하고 총생산량은 감소한다.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모두 맞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보고 모든 경우에 생산이 늘어난다고 섞어 외우기 쉽다. 특히 ①은 수요견인이라는 원인은 맞고 ③은 물가상승이라는 결과는 맞아서 부분적으로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총생산량의 방향이 각각 반대로 적혀 있어 틀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인이 총수요 변화인지 총공급 변화인지 구분한다. 총수요 증가이면 AD 우측 이동으로 물가와 생산이 함께 증가하고, 비용 상승이면 AS 좌측 이동으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생산은 감소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수요견인은 AD 우측 이동으로 물가↑ 생산↑, 비용인상은 AS 좌측 이동으로 물가↑ 생산↓이다.

NoteBase

문 7. 다음 보수행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A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B의 보수이다)

		경기자 B	
		전략 X	전략 Y
경기자 A	전략 X	$(3,\ 2)$	$(2,\ 3)$
	전략 Y	$(1,\ 1)$	$(0,\ 0)$

① A의 우월전략은 X이다.

② B의 우월전략이 없으므로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내쉬균형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2개이다.

④ 우월전략균형은 항상 내쉬균형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행렬에서 각 경기자의 최적반응을 찾아 우월전략, 우월전략균형, 내쉬균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월전략은 상대가 어떤 전략을 택하든 자신의 보수가 더 큰 전략이다.
우월전략균형은 모든 경기자가 자신의 우월전략을 선택한 결과이다.
내쉬균형은 각 경기자의 전략이 서로의 최적반응이어서 누구도 혼자 전략을 바꿔 이득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 경제학 · 2025 · 2차

선지별 해설

① O
A는 B가 X를 택할 때 X의 보수 3이 Y의 보수 1보다 크고, B가 Y를 택할 때도 X의 보수 2가 Y의 보수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X가 더 유리하므로 A의 우월전략은 X이다.

② O
B는 A가 X를 택하면 Y에서 3을 얻어 X의 2보다 크고, A가 Y를 택하면 X에서 1을 얻어 Y의 0보다 크다.
따라서 B에게는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더 나은 한 전략이 없으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우월전략균형은 모든 경기자에게 우월전략이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2개이다"이다.
A의 최적반응은 B가 X이든 Y이든 모두 X이고, B의 최적반응은 A가 X이면 Y, A가 Y이면 X이다.
상호 최적반응이 동시에 만나는 조합은 (A의 X, B의 Y) 하나뿐이므로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1개이다.
내쉬균형이 일반적으로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이 게임에 2개의 내쉬균형이 있다는 결론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1개이며 (X, Y)이다"이다.

④ O
우월전략균형에서는 각 경기자가 상대 전략과 무관하게 자신의 최적 전략을 고른다.
따라서 그 결과에서 어느 한 경기자도 혼자 전략을 바꿔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우월전략균형은 항상 내쉬균형이다.

오답 포인트

B에게 우월전략이 없다는 사실과 내쉬균형이 없다는 사실을 혼동하기 쉽다. 또 B의 최적반응이 상황에 따라 X와 Y로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X, Y)와 (Y, X)를 모두 내쉬균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Y, X)에서는 A가 Y에서 X로 바꾸면 보수가 1에서 3으로 올라가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열에서 A의 보수가 더 큰 칸을 찾아 A의 최적반응을 표시한다.
다음으로 각 행에서 B의 보수가 더 큰 칸을 찾아 B의 최적반응을 표시한다.
한 전략이 모든 경우에 반복해서 최적이면 우월전략이고, 두 사람의 최적반응 표시가 겹치는 칸만 내쉬균형이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은 어디서나 이기는 한 전략이고, 내쉬균형은 상호 최적반응이 겹치는 칸이다.

NoteBase

문 8.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변동은 반복적이나 불규칙적이다.

② GDP 지출항목 중에서 투자의 변동성은 소비에 비해 크다.

③ 소비, 투자, GDP, 고용 등의 거시변수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행성을 보인다.

④ 국내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제성장이라 하고 장기적 추세를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의 구분, 그리고 경기순응적 거시변수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기변동은 실질 GDP, 고용, 소비, 투자 등이 장기추세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반복되지만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경제성장은 한 나라의 생산능력과 실질 GDP의 장기적 추세가 확대되는 현상이다.
공행성은 소비, 투자, 고용처럼 경기확장기에는 함께 늘고 경기침체기에는 함께 줄어드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기변동은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 반복성은 있으나 지속기간과 폭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적 변동이다.
② O: GDP 지출항목 가운데 투자는 소비보다 경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변동성이 더 크다. 그래서 소비보다 투자 변동이 더 크다는 진술은 경기변동의 기본 성질에 맞는다.
③ O: 소비, 투자, 실질 GDP,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순응 변수로서 경기확장기에는 대체로 증가하고 경기침체기에는 감소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행성을 보인다.
④ X: 틀린 부분은 "국내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제성장이라 하고 장기적 추세를 경기변동"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단기적 등락이 경기변동이고, 장기적 추세의 상승이 경제성장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의 시간축을 서로 뒤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를 바꾸어 읽으면 익숙한 용어여도 쉽게 혼동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시지표의 단기적 오르내림을 묻으면 경기변동으로, 생산능력과 실질 GDP의 장기적 증가 추세를 묻으면 경제성장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소비보다 투자의 변동성이 크고 소비·투자·고용이 GDP와 같은 방향이면 공행성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경기변동은 단기 등락, 경제성장은 장기 추세, 투자는 소비보다 더 크게 흔들린다.

NoteBase

문 9. A국과 B국이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생산하기 위한 단위당 노동투입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시간)

국가 \ 재화	스마트폰	카메라
A국	6	3
B국	8	10

① A국은 카메라에,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② A국은 스마트폰에, B국은 카메라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③ A국은 카메라와 스마트폰 두 재화에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④ B국은 카메라와 스마트폰 두 재화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의 단위당 노동투입시간으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함께 판정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나라의 단위당 노동투입시간을 비교해 절대우위를 본다.
2.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본다.
3.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혼동하지 않고 선지 문장을 대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A국의 카메라 1대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0.5대이고, B국의 카메라 1대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25대이다.
카메라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A국이 카메라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스마트폰 1대의 기회비용은 A국이 카메라 2대, B국이 카메라 0.8대이므로 B국이 스마트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② X
'A국은 스마트폰에, B국은 카메라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국은 카메라에, B국은 스마트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③ X
'A국은 카메라와 스마트폰 두 재화에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만 성립하므로 A국은 카메라에만 비교우위를 갖고, 스마트폰의 비교우위는 B국이 가진다.

④ X
'B국은 카메라와 스마트폰 두 재화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절대우위는 같은 재화를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가지는데, A국은 스마트폰 6시간으로 B국 8시간보다 짧고 카메라도 3시간으로 B국 10시간보다 짧다. 올바르게는 A국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를 섞어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절대우위는 투입시간의 절대 크기를,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 비교를 본다는 점을 놓치면 두 개념을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가 나오면 먼저 각 칸의 숫자를 바로 비교해 절대우위를 판단하고, 그다음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따로 판단한다.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져도 비교우위는 재화별로 나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더 적은 투입량, 비교우위는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0.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관점에서 다음 상황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乙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乙은 늦은 밤 K-팝을 자주 듣는데 이 때문에 甲은 숙면을 취할 수 없다. 甲은 음악 소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100만 원의 가치를 두고 乙은 늦은 밤 K-팝을 듣는 것에 대하여 30만 원의 가치를 둔다.

① 甲과 乙 간에 자발적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자세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② 甲이 乙에게 늦은 밤 음악을 듣지 않는 대가로 50만 원의 비용을 제안하면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③ 甲과 乙 사이의 자발적 협상에 관련한 거래비용이 매우 클 경우,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수 있다.

④ 갈등의 시작은 乙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성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층간소음이라는 외부성 사례에 코즈정리를 적용하여 사적 협상으로 효율적 해결이 가능한지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은 甲이 조용히 숙면할 가치에 100만 원을 두고, 乙이 늦은 밤 K-팝을 들을 가치에 30만 원을 둔다는 점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조용한 수면의 편익이 음악 청취의 편익보다 크므로 효율적인 결과는 야간 음악을 중단하는 방향이라는 점이다.

핵심 개념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면 외부성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사례에서는 누가 권리를 처음 가지는지와 별개로, 甲의 피해 회피 가치 100만 원이 乙의 음악 청취 가치 30만 원보다 크므로 협상을 통해 소음을 줄이는 쪽이 효율적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간 편익과 비용의 크기, 그리고 협상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적 협상이 가능하고 거래비용이 크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코즈정리의 해결 방식은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이다. 甲과 乙이 합의를 시도할 자세가 있어야 외부성을 시장 내부의 거래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취지는 옳다.

② O
甲이 50만 원을 제안하면 乙은 늦은 밤 음악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편익 30만 원보다 큰 보상을 받게 된다. 甲도 100만 원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50만 원을 지급할 유인이 있으므로 3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의 보상액에서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③ O
코즈정리는 거래비용이 매우 낮다는 조건에서 잘 작동한다. 협상 비용, 감정적 갈등, 정보비용 등이 매우 크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다.

④ X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 개입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다. 코즈정리의 관점에서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면 당사자 간 협상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정부 개입 없이도 사적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외부성이 보이면 곧바로 정부 규제를 떠올리는 수험생을 노린 선지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외부성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코즈정리가 전제하는 사적 협상 가능성과 편익 비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즈정리 사례형 문제는 먼저 누가 어떤 편익과 피해를 얼마만큼 가지는지 비교하고, 그다음 거래비용이 낮아 당사자 협상이 가능한지를 본다. 피해 회피 편익이 가해 행위의 편익보다 크고 협상이 가능하면 사적 합의가 효율적 해결책이 된다.

암기 포인트

코즈정리는 외부성이 있어도 거래비용이 낮고 재산권이 분명하면 사적 협상으로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NoteBase

문 11. 소득 180으로 X재와 Y재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x^2y^3$이다.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6과 3이라고 할 때, 이 소비자의 X재와 Y재에 대한 최적소비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x, y는 각각 X재와 Y재에 대한 소비량이다)

① x: 9, y: 42

② x: 12, y: 36

③ x: 15, y: 30

④ x: 18, y: 2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브더글러스 효용함수 $U(x,y)=x^2y^3$에서 한계대체율과 예산제약을 이용해 최적소비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소득은 180,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3이다.
구해야 할 값: 효용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x, y이다.
주의할 조건: 보기의 모든 조합이 예산선 $6x+3y=180$ 위에 있으므로 예산만 맞는지 보지 말고 접점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MRS=\frac{MU_x}{MU_y}=\frac{P_x}{P_y}$
$MU_x=2xy^3, \quad MU_y=3x^2y^2$
따라서
$\frac{MU_x}{MU_y}=\frac{2y}{3x}=\frac{6}{3}=2$
이므로
$2y=6x \Rightarrow y=3x$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내부해를 갖는 코브더글러스 효용극대화에서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최적점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한계효용을 구하면 $MU_x=2xy^3$, $MU_y=3x^2y^2$이다.
2. 접점조건 $\frac{MU_x}{MU_y}=\frac{P_x}{P_y}$을 쓰면 $\frac{2y}{3x}=2$이므로 $y=3x$이다.
3. 이를 예산제약식 $6x+3y=180$에 대입하면 $6x+9x=180$, 즉 $15x=180$이므로 $x=12$이다.
4. $y=3x$이므로 $y=3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제시된 조합은 $(x, y) = (9, 42)$이다. 예산제약 $6x + 3y = 180$은 만족하지만 최적조건 $y = 3x$를 만족하지 않는다. $x = 9$이면 최적 y는 27이어야 하므로 틀린 값은 $x = 9, y = 42$이고, 올바르게는 $x = 12, y = 36$이다.

② O
제시된 조합은 $(x, y) = (12, 36)$이다. $y = 3x$를 만족하고 예산제약 $6 \cdot 12 + 3 \cdot 36 = 180$도 만족한다. 계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③ X
제시된 조합은 $(x, y) = (15, 30)$이다. 예산은 맞지만 $y = 3x$라면 $x = 15$일 때 y는 45여야 한다. $y = 30$은 X재를 과다하게, Y재를 과소하게 배분한 값이다. 틀린 값은 $x = 15, y = 30$이고, 올바르게는 $x = 12, y = 36$이다.

④ X
제시된 조합은 $(x, y) = (18, 24)$이다. 예산은 맞지만 접점조건 $y = 3x$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x = 18$이면 최적 y는 54여야 하므로 제시된 $y = 24$는 너무 작다. 틀린 값은 $x = 18, y = 24$이고, 올바르게는 $x = 12, y = 36$이다.

계산 결과 $x = 12, y = 36$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보기가 예산선 위에 있어서 예산제약만 확인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지출총액이 같아도 한계대체율이 가격비율과 같지 않으면 최적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형 소비자선택 문제는 먼저 MU_X, MU_Y를 구해 $\frac{MU_X}{MU_Y} = \frac{P_X}{P_Y}$로 재화 간 비율을 만든 뒤, 그 비율을 예산제약식에 대입해 최적수량을 확정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코브더글러스 효용의 내부해는 접점조건으로 재화비율을 먼저 만든 뒤 예산식에 대입하면 빠르게 풀린다.

NoteBase

문 12. 단기 필립스곡선과 반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립스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희생률이 작아진다.

②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필립스곡선도 가파르다.

③ 희생률은 합리적 기대에서보다 적응적 기대에서 크게 나타난다.

④ 적응적 기대하에서 실업률 상승이 없는 반인플레이션이란 단기 필립스곡선상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기대형성 방식, 반인플레이션의 희생률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필립스곡선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단기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을 1%p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누적 산출감소 또는 누적 실업 증가의 크기이다.
적응적 기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뒤따라 천천히 조정되는 방식이고, 합리적 기대는 정책 변화가 신뢰되면 기대가 더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필립스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같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업률 상승 폭이 작다. 따라서 누적 산출감소나 실업 증가로 측정되는 희생률도 작아진다.

② O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르다는 것은 물가 변화에 대한 산출 반응이 작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같은 크기의 총수요 충격에도 산출과 실업률은 조금만 변하고 물가는 크게 변한다. 따라서 같은 실업률 변화에 대응하는 인플레이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필립스곡선도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③ O
적응적 기대에서는 사람들이 낮아진 인플레이션을 뒤늦게 반영하므로 반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실업 증가와 산출감소가 더 오래 지속된다. 반대로 합리적 기대에서는 정책이 신뢰되면 기대가 빠르게 조정되어 희생률이 더 작아질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실업률 상승이 없는 반인플레이션이란 단기 필립스곡선상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이다.
단기 필립스곡선상의 이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감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실업률 상승이 없는 반인플레이션은 같은 실업률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경우이므로, 올바르게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단기 필립스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곡선 위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을 바꿔 놓은 선지이다. 반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보통 단기 필립스곡선 위를 따라가며 발생하고, 비용 없는 반인플레이션은 기대 조정으로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인플레이션 문제에서는 먼저 발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부터 확인한 뒤, 인플레이션 하락이 실업률 상승을 동반하는지 살핀다. 실업률이 함께 오르면 단기 필립스곡선상의 이동이고, 실업률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만 낮아지면 기대 변화에 따른 곡선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희생률은 필립스곡선이 가팔수록 작아지고, 비용 없는 반인플레이션은 곡선 위 이동이 아니라 곡선의 하방 이동이다.

NoteBase

문 13. 이자율의 위험구조와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여부가 다르지만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 간의 관계를 이자율의 위험구조라고 한다.

②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의 이자율 간의 관계를 이자율의 기간구조라고 한다.

③ 시장분리이론은 장·단기채권들의 이자율이 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한다.

④ 기대이론은 장·단기채권들 간의 완전대체성을 가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율의 위험구조와 기간구조의 정의, 그리고 기간구조 이론 중 기대이론과 시장분리이론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위험구조는 만기는 같지만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여부 등이 다른 채권들 사이의 이자율 차이이다.
기간구조는 위험이 비슷한 채권들 사이에서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뜻한다.
기대이론은 장기채와 단기채가 완전대체적이라고 보고, 장기이자율을 미래 단기이자율 기대와 연결해 설명한다.
시장분리이론은 만기별 채권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장기채와 단기채가 완전대체적이지 않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차이 때문에 이자율이 달라지는 관계를 위험구조라고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의 이자율 관계를 기간구조라고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시장분리이론은 장·단기채권들의 이자율이 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한다"는 표현이다. 시장분리이론은 만기별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므로 장단기 이자율의 동행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기대이론이 장·단기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설명한다.
④ O: 기대이론은 장기채와 단기채가 완전대체적이라는 가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시장분리이론과 기대이론의 역할을 서로 바꿔 외우면 ③에서 틀리기 쉽다.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 설명"은 기대이론의 내용이고, 시장분리이론은 오히려 만기별 시장의 분리를 강조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같은 만기인지 다른 만기인지부터 구분한다. 같은 만기에서 위험과 유동성 차이를 묻으면 위험구조이고, 다른 만기 사이의 관계를 묻으면 기간구조이다. 그다음 이론이 장단기 이자율의 동행이나 완전대체성을 말하면 기대이론이고, 만기별 시장의 분리를 말하면 시장분리이론이다.

암기 포인트

같은 만기 차이는 위험구조, 다른 만기 차이는 기간구조, 동행 설명은 기대이론, 분리 설명은 시장분리이론이다.

NoteBase

문 14. 어느 경제의 본원통화가 100억 원이고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통화량, 통화승수, 지급준비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모든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 이외에 모든 예금을 대출하며, 요구불예금만 존재한다)

① 통화량: 100억 원, 통화승수: 0.1, 지급준비금: 1,000억 원

② 통화량: 100억 원, 통화승수: 10, 지급준비금: 100억 원

③ 통화량: 1,000억 원, 통화승수: 10, 지급준비금: 100억 원

④ 통화량: 1,000억 원, 통화승수: 10, 지급준비금: 1,000억 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보유가 없고 초과지급준비가 없는 단순 예금창조 모형에서 통화승수, 통화량, 지급준비금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본원통화 100억 원
- 지급준비율 10%

구해야 할 값:
- 통화량
- 통화승수
- 지급준비금

주의할 조건:
- 모든 현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민간 보유 현금은 0이다.
-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므로 초과지급준비가 0이다.
- 요구불예금만 존재하므로 통화량은 예금통화와 같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통화승수는 $m = \frac{1}{r}$이다.
통화량은 $M = m \times H$이다.
지급준비금은 $R = r \times D$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제는 현금보유율이 0이고 초과지급준비율도 0인 단순한 예금창조 상황이므로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정해진다. 또 본원통화 100억 원이 전부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남으므로 본원통화와 지급준비금이 같아진다.

계산 과정

1. 지급준비율이 10%이므로 통화승수는 $m = \frac{1}{0.1} = 10$이다.
2. 통화량은 M=m × H=10 × 100억 원=1,000억 원이다.
3. 본원통화는 전부 지급준비금이므로 지급준비금은 100억 원이다. 같은 내용을 예금 기준으로 쓰면 R=0.1 × 1,000억 원=100억 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통화량이 100억 원인 점이 틀리다. 계산 결과 통화량은 1,000억 원이다. 또 통화승수 0.1도 틀리며 올바르게는 10이다. 지급준비금 1,000억 원도 틀리며 올바르게는 100억 원이다.
② X: 통화량 100억 원이 틀리다. 본원통화 100억 원이 예금창조를 거쳐 통화량 1,000억 원이 되므로 올바르게는 1,000억 원이다. 통화승수 10과 지급준비금 100억 원은 맞지만 세 값의 연결이 완전하지 않다.
③ O: 통화량 1,000억 원, 통화승수 10, 지급준비금 100억 원이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④ X: 통화량 1,000억 원과 통화승수 10은 맞지만 지급준비금 1,000억 원이 틀리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10%이므로 올바르게는 100억 원이다.
계산 결과 통화량은 1,000억 원, 통화승수는 10, 지급준비금은 100억 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오답 포인트

본원통화와 통화량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문제에서는 모든 현금이 은행에 들어가고 초과지급준비도 없으므로 본원통화 100억 원이 예금창조를 통해 통화량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지급준비율 10%를 통화승수 0.1로 적거나, 지급준비금 100억 원을 통화량 1,000억 원과 혼동하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보유 0, 초과지급준비 0이라는 조건이 보이면 먼저 $m = \frac{1}{r}$를 적용한다. 그다음 $M = m \times H$로 통화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본원통화가 전부 지급준비금인지 또는 $R = r \times D$인지로 지급준비금을 검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현금보유 0, 초과지준 0이면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고 본원통화는 지급준비금이 된다.

NoteBase

문 15. 투자자 甲의 두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한 보수 M와 확률은 다음과 같다. 甲의 효용함수가 $U(M) = 20\sqrt{M}$ 일 때, 두 가지 투자 대안의 기대효용 차이는?

보수(M)	확률	
	투자 A	투자 B
4,900	0.2	0.3
2,500	0.7	0.5
900	0.1	0.2

① 0

② 10

③ 20

④ 3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효용함수 $U(M) = 20\sqrt{M}$를 각 보수에 적용한 뒤 확률가중평균으로 기대효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보수는 4,900, 2,500, 900이다.
투자 A의 확률은 각각 0.2, 0.7, 0.1이다.
투자 B의 확률은 각각 0.3, 0.5, 0.2이다.
구해야 할 값:
두 투자 대안의 기대효용 차이이다.
주의할 조건:
기대보수가 아니라 기대효용을 비교해야 하므로 먼저 각 보수의 효용을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사용할 공식은 $E[U(M)] = \sum p_i U(M_i)$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가 보수의 확률분포와 효용함수를 함께 주었으므로, 각 상태의 효용에 확률을 곱해 합한 기대효용으로 두 투자안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각 보수의 효용을 계산하면 $U(4{,}900) = 20 \times 70 = 1{,}400$, $U(2{,}500) = 20 \times 50 = 1{,}000$, $U(900) = 20 \times 30 = 600$이다.
2. 투자 A의 기대효용은 $0.2 \times 1{,}400 + 0.7 \times 1{,}000 + 0.1 \times 600 = 280 + 700 + 60 = 1{,}040$이다.
3. 투자 B의 기대효용은 $0.3 \times 1{,}400 + 0.5 \times 1{,}000 + 0.2 \times 600 = 420 + 500 + 120 = 1{,}040$이다.
4. 두 투자 대안의 기대효용 차이는 $1{,}040 - 1{,}040 = 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두 투자안의 기대효용이 모두 1,040이므로 차이는 0이다.

② X
- 기대효용 차이는 10이 아니다.
- 틀린 표현은 "차이는 10"이다. 올바르게는 "차이는 0"이다.
- 10은 확률가중합을 잘못 더하거나 한 투자안의 효용합을 누락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③ X
- 기대효용 차이는 20이 아니다.
- 틀린 표현은 "차이는 20"이다. 올바르게는 "차이는 0"이다.
- 20은 효용함수의 계수 20을 차이값으로 오해할 때 떠올리기 쉬운 오답이다.

④ X
- 기대효용 차이는 30이 아니다.
- 틀린 표현은 "차이는 30"이다. 올바르게는 "차이는 0"이다.
- 30은 $\sqrt{900} = 30$만 보고 특정 상태의 수치를 전체 기대효용 차이로 착각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기대보수와 기대효용을 혼동하게 만드는 점이다. 보수 4,900, 2,500, 900을 바로 평균내면 안 되고, 먼저 효용값 1,400, 1,000, 600으로 바꾼 뒤 확률가중평균을 해야 한다. 또한 두 투자안의 확률분포가 달라도 계산 결과 기대효용이 같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10, 20, 30 같은 차이를 억지로 만들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 문제가 나오면 보수를 먼저 $U(M)$로 변환하고, 그다음 $E[U(M)]$를 구해 비교한다. 마지막에는 두 기대효용을 나란히 적고 차이를 직접 빼서 0인지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대효용 비교는 $E[U(M)]$를 본다. 같은 보수라도 효용으로 바꾼 뒤 확률평균해야 한다.

NoteBase

문 16.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의 조세부담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직선이다)

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②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③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일 때 소비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④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세부담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되며, 완전비탄력인 쪽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완전탄력인 쪽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부담 귀착은 세금을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가격 조정 이후 경제적으로 누가 실제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다.
수요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그쪽은 수량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수요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그쪽은 불리한 가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가도 수량을 줄이지 못하므로 물품세가 소비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틀린 표현은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된다'이고, 올바르게는 '소비자에게 모두 귀착된다'이다.

② O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전혀 사지 않으므로 생산자는 세금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 따라서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③ O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는 기존 순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세금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따라서 물품세는 소비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④ O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일 수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어도 그 부담을 떠안는다. 따라서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완전비탄력적'이라는 말을 부담이 적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실제로는 수량 조정이 전혀 되지 않는 쪽이 세금을 피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귀착 문제는 먼저 어느 쪽이 덜 탄력적인지부터 본다. 완전비탄력 곡선이 있는 쪽이 세금을 100% 부담하고, 완전탄력 곡선이 있는 쪽은 세금을 0% 부담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귀착은 덜 탄력적인 쪽 부담, 완전비탄력은 100% 부담, 완전탄력은 0% 부담이다.

NoteBase

문 17. 외부충격으로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최초 균형상태에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모두 감소한다.

②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감소하지만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③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모두 증가한다.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균형거래량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동시에 이동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중 어느 변수가 확정되고 어느 변수가 불확정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처럼 두 곡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시장에 압력을 주면 균형가격은 한쪽 방향으로 확정되지만 균형거래량은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도 같은 구조이므로 균형가격은 하락으로 확정되고 균형거래량은 불확정이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거나 모두 감소하면 이번에는 균형거래량이 각각 증가 또는 감소로 확정되고, 균형가격은 어느 쪽 이동이 더 큰지 알 수 없어 불확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을 올리는 힘이 생기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리지만 거래량은 줄이는 힘이 생긴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상승으로 확정되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틀린 표현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모두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이다.

② O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거래량을 내리는 힘이 생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리지만 거래량은 늘리는 힘이 생긴다.
두 이동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균형가격은 최초보다 감소한다.
반면 거래량은 수요 감소 효과와 공급 증가 효과가 서로 반대이므로 변화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③ X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거래량은 두 이동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증가가 확정된다.
하지만 가격은 수요 증가가 올리는 힘과 공급 증가가 내리는 힘이 충돌하므로 알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모두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균형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이다.

④ X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거래량은 두 이동이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감소가 확정된다.
가격은 수요 감소가 내리는 힘과 공급 감소가 올리는 힘이 충돌하므로 알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균형거래량은 최초 균형상태보다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반대 방향 이동이면 가격이 확정되고 거래량이 불확정이며, 같은 방향 이동이면 거래량이 확정되고 가격이 불확정이라는 기준을 뒤바꾸면 ①, ③, ④를 쉽게 고르게 된다. 특히 ③은 거래량 증가까지는 맞지만 가격도 함께 증가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면 먼저 가격과 거래량 각각에 대해 두 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본다. 어떤 변수에 대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그 변수는 확정되고, 서로 반대 방향이면 그 변수는 이동 폭에 따라 달라져 불확정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반대 이동은 가격 확정·거래량 불확정, 같은 이동은 거래량 확정·가격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18. X재 시장에서 정부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였을 때, 이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X재 시장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가격: 상승, 산출량: 증가, 생산자잉여: 감소

② 가격: 상승, 산출량: 증가, 생산자잉여: 증가

③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생산자잉여: 증가

④ 가격: 하락, 산출량: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소비자 보조금으로 내부화할 때 수요곡선 이동이 시장가격, 산출량,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정부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핵심 사실 2: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정책이므로 수요자의 지불의사가 커진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은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늘린다.

핵심 개념

소비자 보조금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낮춰 수요곡선을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생산자잉여는 시장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므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늘면 대체로 증가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보조금의 직접 대상이 소비자라는 점보다 시장에서 어떤 곡선이 이동하는지를 먼저 본다. 소비자 보조금은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산출량은 증가하며,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올라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격 상승과 산출량 증가는 맞지만 생산자잉여 감소가 틀리다.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생산자가 받는 시장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② O: 소비자 보조금은 수요를 늘려 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산출량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③ X: 산출량 감소가 틀리다. 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새로운 균형은 더 높은 가격과 더 많은 거래량에서 형성되므로 산출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④ X: 가격 하락, 산출량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가 모두 이 사례와 반대이다. 소비자 보조금에 따른 수요 증가에서는 시장거래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며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까지 하락한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수요 증가가 있으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상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문제는 먼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보고 이동하는 곡선을 정한다. 그다음 이동한 곡선 때문에 균형가격과 균형산출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자잉여나 소비자잉여가 그 방향을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 보조금은 수요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산출량 증가, 생산자잉여 증가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9.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서 어느 경제가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 정부의 조세 증가가 장·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단, AD곡선은 우하향하고 단기 AS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만 감소한다.

②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감소한다.

③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만 증가한다.

④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장기균형의 AD-AS 모형에서 조세 인상으로 총수요가 감소할 때 단기와 장기의 물가·국민소득 조정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가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총수요곡선 AD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단기에는 AD 감소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함께 감소한다. 장기에는 임금과 생산비가 하향 조정되어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국민소득은 자연산출량으로 복귀하고 물가만 초기 장기균형보다 낮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감소한다는 부분은 맞다.
틀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만 감소한다"이다.
장기에는 국민소득이 자연산출량 수준으로 복귀하므로 감소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감소한다"이다.

② O
조세 증가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단기에는 물가와 국민소득을 함께 낮춘다.
이후 경기침체로 임금과 생산비가 하락하면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장기에는 국민소득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물가만 감소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와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만 증가한다"이다.
조세 증가는 확장정책이 아니라 긴축효과이므로 AD를 좌측 이동시켜 단기에는 물가와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장기에도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자연산출량으로 복귀한다. 올바르게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감소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증가한다"이다.
조세 인상은 총수요를 줄이므로 단기 방향부터 반대이다. 장기에도 물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조세 증가를 정부지출 증가와 반대로 보지 못하면 ③, ④처럼 단기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또
장기균형에서는 국민소득이 자연산출량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놓치면 ①처럼 장기에도 국민소득이 계속 감소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변수 변화가 나오면 먼저 AD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본다. 그다음 단기에는 물가와 산출량이 함께 움직이고, 장기에는 산출량이 자연산출량으로 복귀해 물가만 남는다는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조세 증가=AD 좌측 이동, 단기에는 물가·산출량 감소, 장기에는 산출량 복귀·물가만 하락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인구증가를 고려한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1인당 자본축적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elta k = sf(k) - (\delta + n)k$ (단, k는 1인당 자본량(K/L), s는 저축률, $f(k)$는 1인당 생산함수, δ는 감가상각률, n은 인구증가율,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을 나타낸다)

① 정상상태에서 자본량은 일정하다.

② $\delta = 0$이고 $n = 0$일 때,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저축률과 자본의 평균생산의 곱과 같다.

③ 현재의 k가 정상상태의 k보다 크다면, 정상상태수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δ와 n이 낮아져야 한다.

④ 정상상태에서 일반적으로 $\Delta k = 0$이지만 저소득국가의 고도성장기에서는 정상상태라도 $\Delta k > 0$일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의 1인당 자본축적식 $\Delta k = sf(k) - (\delta + n)k$를 해석하여 정상상태와 1인당 자본증가율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k는 1인당 자본량, $sf(k)$는 1인당 투자, $(\delta + n)k$는 감가상각과 인구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이다.
정상상태는 $\Delta k = 0$, 즉 $sf(k) = (\delta + n)k$인 상태이다.
$\delta = 0$, $n = 0$이면 $\Delta k = sf(k)$이고,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Delta k/k = sf(k)/k$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상상태에서 일정한 것은 총자본량 K가 아니라 1인당 자본량 k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정상상태에서도 총자본량 K는 증가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자본량은 일정하다'이고, 올바르게는 '1인당 자본량은 일정하다'이다.
② O: $\delta = 0$, $n = 0$이면 $\Delta k = sf(k)$이다. 따라서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Delta k/k = sf(k)/k = s \cdot [f(k)/k]$가 되므로 저축률과 자본의 평균생산의 곱과 같다.
③ X: 현재의 k가 정상상태의 k^*보다 크면, 정상상태 정의상 이미 $sf(k) < (\delta + n)k$가 성립하므로 $\Delta k < 0$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δ, n, 저축률 같은 외생 파라미터를 전혀 바꾸지 않아도 1인당 자본량이 스스로 줄어들며 정상상태로 수렴한다. 이는 $sf(k)$가 k에 대해 오목하고 $(\delta + n)k$는 직선이어서 $k > k^*$ 구간에서는 곡선이 직선 아래에 놓이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δ와 n이 낮아져야 한다'이며, δ와 n을 낮출 필요 없이 이미 자동으로 수렴 중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정상상태의 정의가 바로 $\Delta k = 0$이다. 저소득국가의 고도성장기는 대체로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과도기 상태를 뜻할 뿐이며, 정상상태인데 $\Delta k > 0$인 경우는 이 식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상상태라도 $\Delta k > 0$일 수 있다'이고, 올바르게는 '정상상태에서는 항상 $\Delta k = 0$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정상상태에서 일정한 변수가 총자본량 K인지 1인당 자본량 k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③은 정상상태보다 k가 큰 경우 수렴하려면 Δk의 부호가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게 만든다. ④는 '고도성장기'라는 표현으로 정상상태의 정의 자체를 흔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문항은 먼저 정상상태를 $\Delta k = 0$로 놓고, 다음에 일정한 변수가 총량 K인지 1인당 변수 k인지 구분하면 된다. 증가율을 묻는 선지는 식 전체를 k로 나누어 $\Delta k/k$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상상태는 K 고정이 아니라 k 고정이며, $\delta = n = 0$이면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저축률 × 자본의 평균생산이다.

NoteBase

문 21. X재 시장은 균형상태에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으로 규제 가격에서의 수요량이 균형거래량보다 증가하였다.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전후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없으며,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 거래 가격은 하락한다.

③ 시장거래량이 규제 가격에서의 수요량보다 적다.

④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가 가격상한제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거래가격·거래량·잉여의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초기 시장은 균형상태이다.
규제가격에서 수요량이 균형거래량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아졌음을 뜻한다.
수요와 공급의 이동이 없고 암시장도 없으므로 실제 거래량은 규제가격에서의 공급량으로 결정된다.

핵심 개념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가격의 최고한도를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규제이다.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에 의해 제한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규제가격에서 수요량이 늘었다는 단서로 규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가격상한제의 결과인 가격 하락, 초과수요 발생, 거래량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는 대표적으로 가격상한제이다. 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게 묶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므로 옳다.

② O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므로 시장 거래가격은 하락한다. 문제의 규제가격이 바로 그 하락한 거래가격이므로 옳다.

③ O
규제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암시장이 없으면 실제 시장거래량은 규제가격에서의 공급량이며, 이는 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보다 적으므로 옳다.

④ X
생산자잉여는 보통 가격상한제로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고 실제 거래량도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은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이익을 본다고 착각하면 ④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수요량이 균형거래량보다 증가'했다는 단서가 가격상한제와 초과수요를 뜻한다는 점이며, 이 경우 생산자잉여는 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규제 문제는 먼저 규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부터 확인한다. 규제가격이 낮아 초과수요가 생기면 가격상한제이고, 거래량은 공급량 기준으로 줄며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는 가격 하락, 초과수요, 거래량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2.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현재 t로부터 1년 후 시점의 1년 만기 채권의 예상 이자율은? (단,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성립한다)

◯ 현재 t 시점에서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각각 2%, 3%, 4.5%이다.
◯ 2년 만기, 3년 만기 채권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각각 0.2%, 0.5%이다.

① 3%
② 3.6%
③ 4%
④ 6.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현재 1년 금리와 1년 후 예상 1년 금리의 평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값으로 놓고 미래 단기금리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재 t 시점 1년 만기 금리는 2%, 2년 만기 금리는 3%, 2년 만기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은 0.2%이다.
구해야 할 값: 현재로부터 1년 후 시점의 1년 만기 채권 예상 이자율이다.
주의할 조건: 유동성 프리미엄 0.2%는 2년 만기 채권 금리에 더해지는 값이므로, 평균 기대단기금리를 구할 때는 2년 금리 3%에서 먼저 차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i_{2,t} = \frac{i_{1,t} + E(i_{1,t+1})}{2} + l_2$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2년 만기 금리가 현재와 미래의 1년 금리 평균에 2년물 보유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3 = \frac{2 + E(i_{1,t+1})}{2} + 0.2$이다.
2. 유동성 프리미엄을 이항하면 $2.8 = \frac{2 + E(i_{1,t+1})}{2}$이다.
3. 양변에 2를 곱하면 $5.6 = 2 + E(i_{1,t+1})$이다.
4. 따라서 $E(i_{1,t+1}) = 3.6$이므로 현재로부터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예상 이자율은 3.6%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3%는 현재 2년 만기 채권 금리 자체일 뿐, 1년 후의 예상 1년 금리가 아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0.2%를 제거한 뒤 평균식을 풀어야 하므로 올바른 값은 3%가 아니라 3.6%이다.
② O: $3 = \frac{2 + E(i_{1,t+1})}{2} + 0.2$를 풀면 $E(i_{1,t+1}) = 3.6$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X: 4%는 유동성 프리미엄 0.2%를 빼지 않고 순수 기대가설처럼 $3 = \frac{2 + E(i_{1,t+1})}{2}$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이 문항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므로 올바른 값은 4%가 아니라 3.6%이다.
④ X: 6.4%는 3년 만기 정보까지 섞어 첫 번째 미래 1년 금리를 과대계산한 값으로, 2년 만기 식만으로 구해야 하는 값과 맞지 않는다. 문제에서 묻는 값은 1년 후의 1년 금리 하나이므로 올바른 값은 6.4%가 아니라 3.6%이다.

오답 포인트

유동성 프리미엄 0.2%를 빼지 않고 기대가설 공식만 적용하면 4%가 나와 ③에 끌리기 쉽다. 또 3년 만기 금리와 3년물 프리미엄 0.5%는 이 질문을 푸는 데 직접 필요하지 않은데, 주어진 수치를 모두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④처럼 과대계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기구조 문제에서 특정 시점의 미래 1년 금리를 묻는다면, 먼저 그 값을 포함하는 가장 짧은 만기 식을 고른다. 그다음 장기금리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먼저 빼고, 남은 값을 현재 단기금리와의 평균식으로 풀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장기금리 = 기대단기금리 평균 +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NoteBase

문 23. 한국과 미국 통화 간의 실질환율 q_원/달러은 5, 기대 실질환율은 6,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2%이다. 실질이자율 평형조건을 따를 때,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단, 두 국가 사이에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지 않고 실질이자율은 사전적 실질이자율이다)

① -18%

② 1.8%

③ 2.2%

④ 2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질이자율 평형 조건의 근사식 $r \approx r^* + \frac{q^e - q}{q}$로 한국의 실질이자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재 실질환율 $q = 5$, 기대 실질환율 $q^e = 6$, 미국 실질이자율 $r^* = 2\%$이다.
구해야 할 값: 한국의 실질이자율 r이다.
주의할 조건: q가 원/달러이므로 q 상승은 원화의 실질절하를 뜻한다.

사용할 공식

사용 공식은 $r \approx r^* + \frac{q^e - q}{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실질이자율 평형에서 국내 실질이자율이 해외 실질이자율에 기대 실질절하율을 더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대 실질환율 상승률은 $\frac{6-5}{5} = 0.2 = 20\%$이다.
2. 따라서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2\% + 20\% = 22\%$이다.
3. 선택지와 비교하면 22%에 해당하는 ④가 정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8%는 기대 실질환율 상승률의 방향을 거꾸로 해석한 값이다. 이 문항에서 q 상승은 원화의 실질절하이므로 국내 실질이자율은 미국보다 높아진다. 틀린 값은 -18%이고, 올바르게는 22%이다.
② X: 1.8%는 2%에 20%를 더하지 않고 소수와 퍼센트를 혼동한 값이다. 기대 실질환율 상승률은 0.2가 아니라 20%이므로 0.2%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틀린 값은 1.8%이고, 올바르게는 22%이다.
③ X: 2.2%는 0.2를 20%가 아니라 0.2포인트처럼 잘못 처리한 값이다. 환율 상승률 $\frac{6-5}{5}$는 20%이므로 미국 실질이자율 2%에 더하면 22%가 된다. 틀린 값은 2.2%이고, 올바르게는 22%이다.
④ O: 기대 실질환율 상승률이 20%이고 미국 실질이자율이 2%이므로 실질이자율 평형의 근사식에 따라 한국의 실질이자율은 22%이다.

오답 포인트

$\frac{6-5}{5} = 0.2$를 20%로 바꾸지 못하거나, 원/달러 표기에서 q 상승의 의미를 반대로 읽으면 오답이 나온다. 특히 2.2%는 소수 0.2를 그대로 2%에 붙여 버린 전형적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이자율 평형 문제는 먼저 환율 표기 방향을 확인한 뒤 기대 실질환율 상승률을 구하고, 그 값을 해외 실질이자율에 더하거나 빼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에서 q 상승은 원화 실질절하이며, 근사식은 국내 실질이자율 = 해외 실질이자율 + 기대 실질절하율이다.

NoteBase

문 24. 다음은 물가수준이 1로 일정한 폐쇄경제하의 거시경제모형이다.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초기 균형상태에서 이자율r과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투자가 20만큼 감소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국민소득Y를 초기 균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통화량M^s의 증가분은?

소비함수: $C = 300 + 0.8(Y - T)$
투자함수: $I = 200 - 100r$
정부지출: $G = 100$
조세: $T = 100$
화폐수요: $M^d = 3{,}000 + 5Y - 2{,}500r$
화폐공급: $M^s = 2{,}000$

① 500
② 750
③ 1,000
④ 1,2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율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통화공급 증가분을 IS-LM 모형으로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소비성향은 0.8이다.
투자함수는 $I = 200 - 100r$이다.
화폐수요는 $M^d = 3000 + 5Y - 2500r$이다.
투자가 이자율과 무관하게 20 감소했으므로, 국민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 20을 다시 늘려야 한다.

사용할 공식

투자 변화는 $\Delta I = -100\Delta r$로 계산한다.
화폐수요 변화는 $\Delta M^d = 5\Delta Y - 2500\Delta r$로 계산한다.
이 문제는 국민소득을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경우이므로 $\Delta Y = 0$을 두고 필요한 Δr와 ΔM^s를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외생적 투자 감소 20을 상쇄하려면 투자 증가분 $\Delta I = +20$이 필요하다.
2. $\Delta I = -100\Delta r$이므로 $+20 = -100\Delta r$이다. 따라서 $\Delta r = -0.2$이다.
3. 국민소득을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Delta Y = 0$이다.
4. 화폐수요 변화는 $\Delta M^d = 5 \times 0 - 2500(-0.2) = 500$이다.
5. 화폐시장을 다시 균형으로 만들려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500만큼 늘려야 한다.

선지 판단

① O: 필요한 통화량 증가는 500이다. 이자율을 0.2만큼 낮추면 화폐수요가 500 증가하므로 같은 크기만큼 M^s를 늘려야 한다.
② X: 75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필요한 통화공급 증가분이 750이 아니라 500이다.
③ X: 1,000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화폐수요 증가를 과대 계산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2500 \times -0.2 = 500$이므로 1,000이 아니라 500이다.
④ X: 1,250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국민소득을 고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통화공급 증가분이 1,250가 아니라 500이다.

오답 포인트

투자 감소 20에 승수 5를 곱한 소득 변화만 떠올린 뒤 그 값을 바로 통화량 증가분으로 연결하면 틀린다. 이 문항은 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복원하는 조건이므로 먼저 $\Delta Y = 0$을 두고, 투자 감소를 상쇄할 Δr를 구한 다음 LM식으로 ΔM^s를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LM 보정 문제는 무엇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이자율 변화를 구하고, 마지막에 화폐수요식으로 통화공급 조정폭을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소득 복원형 통화정책 문제는 $\Delta Y = 0$을 먼저 두고 $\Delta I \rightarrow \Delta r \rightarrow \Delta M^s$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25. 甲의 현재 소득은 1,000,000원이며, 이를 모두 외식과 뮤지컬관람에 사용한다. 외식에 대한 지출은 뮤지컬관람에 대한 지출의 3배이고, 뮤지컬관람을 2회, 외식을 10회 할 때, 뮤지컬관람 가격은?

① 125,000원

② 150,000원

③ 175,000원

④ 200,0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지출 비율과 이용 횟수를 이용해 뮤지컬 1회 관람 가격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총소득 1,000,000원, 외식 10회, 뮤지컬 2회이다.
외식 총지출은 뮤지컬 총지출의 3배이다.
구해야 할 값은 뮤지컬 1회 관람 가격이다.

사용할 공식

외식 1회 가격을 E, 뮤지컬 1회 가격을 M이라 두면
$10E + 2M = 1{,}000{,}000$
이고, 외식 총지출이 뮤지컬 총지출의 3배이므로
$10E = 3 \times 2M = 6M$
이다.
이 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개별 가격이 아니라 총지출의 비율을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10E = 6M$이므로 $10E + 2M = 6M + 2M = 8M$이다.
2. 총소득을 모두 사용하므로 $8M = 1{,}000{,}000$이다.
3. 따라서 $M = 125{,}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뮤지컬 1회 관람 가격은 125,000원이므로 맞다.
② X: 150,000원은 총지출 비율을 잘못 처리한 값이다. 외식 총지출이 뮤지컬 총지출의 3배라는 조건을 적용하면 올바른 값은 125,000원이다.
③ X: 175,000원은 외식 횟수 10회와 뮤지컬 횟수 2회를 함께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올바른 값은 125,000원이다.
④ X: 200,000원은 총소득 1,000,000원을 두 지출 비율에 맞게 나누지 못한 값이다. 올바른 값은 12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외식 가격과 외식 총지출을 혼동하면 틀린다. 이 문제의 3배 조건은 1회 가격이 아니라 총지출에 대한 조건이므로 횟수 10회와 2회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출 비율 문제가 나오면 1회 가격이 아니라 총지출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 뒤, 횟수를 곱한 총액 식을 세우고 마지막에 1회 가격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비율 조건이 총지출에 붙으면 횟수를 곱한 뒤 식을 세운다.

NoteBase